지역 메아리

전북도 · 부산광역시 체육회 사무국장 정기교류전 기념식

고창군에서 19일 전북도체육회와 부산광역시체육회간 사무국장 정기교류전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은 고창군 이길수 부군수와 전라북도 체육회 임원과 부산광역시 체육회 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소개, 홍보영상 관람,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이길수 부군수는 "이번 교류전이 전라북도와 부산시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양 지역의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체육회와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양 지역의 체육발전과 화합을 위해 해마다 정기적으로 사무국장 교류전을 열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경찰서, 조직 내 소통 권익 증진 현장활력회의

부안경찰서(서장 이동민)는 2층 경찰서장실에서 경찰서장과 계·팀별 직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 내 소통 활성화와 권익 증진을 위한 현장활력회의를 19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경찰 재직 기간 중 사건·사고 현장 출동 등으로 자신이 겪었던 에피소드 등 흥미진진했던 사례를 공유하여 직원들과 공감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동민 서장은 "앞으로도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 조직 내 소통을 더욱 활성화 함으로서 직원들의 권익증진 향상과 지역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아산면, 재해예방 하천정비

고창군 아산면은 여름철 재난대비를 위해 수해 발생의 요인이 되는 관내 하천정비 사업에 나섰다.

19일 아산면에 따르면 1억3000만원을 투입해 6개의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해 정비사업에 돌입 목동천 등 4개 하천에 5,500만원을 투입 4.5km 대해 하천 준설를 시행하고, 주진천 등 2개 하천에 대해 7,500만원을 투입 제방보수 등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하천정비 사업으로 지역 내 하천 제방과 하천 내 설치된 시설물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역사 · 문화자원 효과적 전달

정읍시, 다양한 코스 시티투어 운영 '인기'

정읍시가 유수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코스의 시티투어를 운영해 인기를 얻고 있다.

시는 "시민과 정읍을 찾은 관광객들이 자가 운전 등 이동에 따른 불편없이 문화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며 정읍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형태의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시티투어는 ▲꿈나무 시티투어와 ▲사계절 테마형 시티투어, 그리고 고창. 부안군과 함께 5월부터 진행 예정인 ▲서남권 시티투어이다.

먼저, 꿈나무 시티투어는 초·중등 학생이 대상이다. 정읍의 전통문화와 역사체험 등을 통해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체험 위주의 코스로 운영, 정읍의 역사·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농경문화체험관과 시립박물관과 시립미술관 등 문화체험을 위주로 하는 A코스와 무성서원, 김명관고택,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등 역사체험을 위주로 하는 B코스로 구성돼 있다. 코스는 학교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참여하지 않은 초등학교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학급 수가 적은 학교의 경우 전교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자매결연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등 7개 도시의 초·중학교도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계절 테마형 시티투어'에는 정읍 관광을 원하는 국·내외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정기투어가 운영되며, 단체 20인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주 중에도 특별투어가 운영된다.

매월 격주로 변경되는 정기운행코스 2가지 이외에도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권 코스, 태산선비문화 유적지권 코스 등 특별투어코가 마련돼 있다.

4월 벚꽃신록 투어코스, 10월 구절초 투어코스 등 계절에 따른 별도 코스 운영도 눈길을 끈다.

예약은 시청 토탈관광과(☎063.539-5234)나 대행업체인 아성관광(☎063.531-6666) 또는 정읍시청 홈페이지 문화관광 탭의 '정읍 시티투어 예약하기'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탑승 요금은 개인은 5,000원, 단체는 4,000원이며 초·중·고, 경로, 장애인, 군인에게는 50% 할인된다.

이와 함께 정읍. 고창. 부안 3개 서남권 시군이 운영하는 '서남권 시티투어'도 5월부터 운영된다.

시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정읍·고창·부안의 주요 관광 명소를 한 눈에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다."며 "올해는 3시·군이 힘을 모아 새로운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등 기존의 부족한 점을 보완, 지난해보다 더욱 편리하고 풍성한 '서남권 시티투어'를 운영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 차별 허물고 더불어 사는 사회로"

정읍시, 장애인예술제 · 장애인의 날 기념식 열어

제15회 장애인예술제와 제38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 기념식이 19일 연지동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김택진 회장)와 만복원(박향식 원장)이 주관하고 정읍시가 후원했다.

1부 행사로 진행된 장애인예술제에서는 정읍지역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들로 구성된 9개 팀이 참여해 댄스와 창극, 합창 등의 다양한 장르를 선보여 박수를 받았다.

기념식에서는 어려운 여건을 이기고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장애 극복상은 고연정(지체장애인협회)씨, 박상미(나눔빌)씨, 한장애(시각장애인협회)씨, 유규례(농아인협회)씨, 문현찬(한국장애인부모회)씨 등이 수상했다.

또 장애인 복지에 기여한 공로로 정미영(지체장애인협회)씨, 김수남(시각장애인협회)씨, 오중환(자애두승원)씨, 김정길(한국장애인부모회)씨 등이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김 시장 권한대행은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허물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 "구태정치 세력 맞서 '클린 · 정책선거'로 승부"

6.13 지방선거 정읍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학수(57)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5인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8일 열렸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정읍을 비롯한 김제, 고창 지역 단체장 경선 대상자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당내 경선 예비후보자는 이학수를 비롯한 김석철, 김영재, 우천규, 유진섭 총 5명이다. 경선방법은 권리당원선거인단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1차 경선에서 하위 2명을 제외하고, 상위 3명을 대상으로 2차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이 예비후보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서(별첨)의 내용은 위원회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정했다"고 밝히고, "경선후보자가 결정된 지금까지도 이 내용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세력이 있다."며 허위사실과 비방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허위사실로 구태정치를 일삼는 세력들에 맞서 '클린·정책 선거'로 승부하겠다."며 당내 경선과 6.13 지방선거에서 정정당당히 승리하겠다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지훈련 1번지로 '우뚝'

고창군,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단 환영식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18일 고창군청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단의 전지훈련 환영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역대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평가받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빛나는 활약으로 온 국민을 기쁘게 해준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단의 고창 전지훈련을 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박우정 군수, 최인규 군의장, 고창군체육회와 군민을 비롯해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국가대표 선수단은 성연택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사무처장을 비롯해 이용 봅슬레이 스켈레톤 총감독, 금메달리스트 윤성빈 선수와 은메달리스트인 원윤종, 김동현, 서영우, 전정린 선수 등이 참석했으며 고창군의 환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고창군 출신인 성연택 사무처장은 "고창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최적의 환경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용 총감독은 "2013년부터 해마다 4월이면 고창군에서 전지훈련을 해왔다"며 "평창의 기운을 이어 2022년에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고창군의 응원과 지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봅슬레이 4인승 종목에서 아시아 첫 은메달을 획득한 원윤종 선수는 "고창에서의 훈련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게 된 단초가 됐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윤선빈 선수도 "올 때마다 좋은 환경에서 따뜻하게 맞아주어 편하게 훈련할 수 있었다."며 "고창군민들의 응원과 성원을 기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박우정 군수는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단의 전지훈련방문은 우리 고창군을 전지훈련 1번지로 그 명성을 드높여 주었다."며 "선수단의 방문을 언제나 환영하며, 선수들이 불편함 없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멋진 경기를 펼쳐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한국환경공단, 상호협력 업무협약

부안군과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가 함께 상호협력 및 양 기관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부안군은 현재 부안읍 중점관리지역, 부안 제3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부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3개 사업을 하수도분야 전문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환경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그 동안의 환경 보전 및 관리, 하수도분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의 완벽한 시공은 물론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국비지원사업 발굴 및 업무지원하기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으로 부안군은 환경공단으로부터 환경기초시설의 기술 기원과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업무 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환경부 사업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환경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기술력으로 부실시공 예방 및 시설완공 후 에도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지원과 하자검사 등 사후관리도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며 부안군민의 복지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